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2016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고 생산토대강화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자크물개작업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크물개손잡이와 물개본체를 확대경으로 주의깊게 들여다보시다가 일군들에게 착색이 잘 안된 부분이 있다고, 이런 자크물개를 가방에 달면 가방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이르시였다.

사실 우리 식의 자크생산공정이 완성된 다음 많은 일군들은 공장에 찾아와 자크가 생산되어나오는것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제품의 완벽성을 위해 이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돌린적이 없었다.

승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기에 자크에 사소한 결점이라도 있을세라 그토록 마음쓰시며 심혈을 기울이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크물개를 착색하는 기술을 높여야 한다고, 고급가방에 다는 자크물개는 금색이나 은색도금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크의 형태와 색깔을 다양화, 다색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한 일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나갈 마음속결의를 굳게 다지였다.